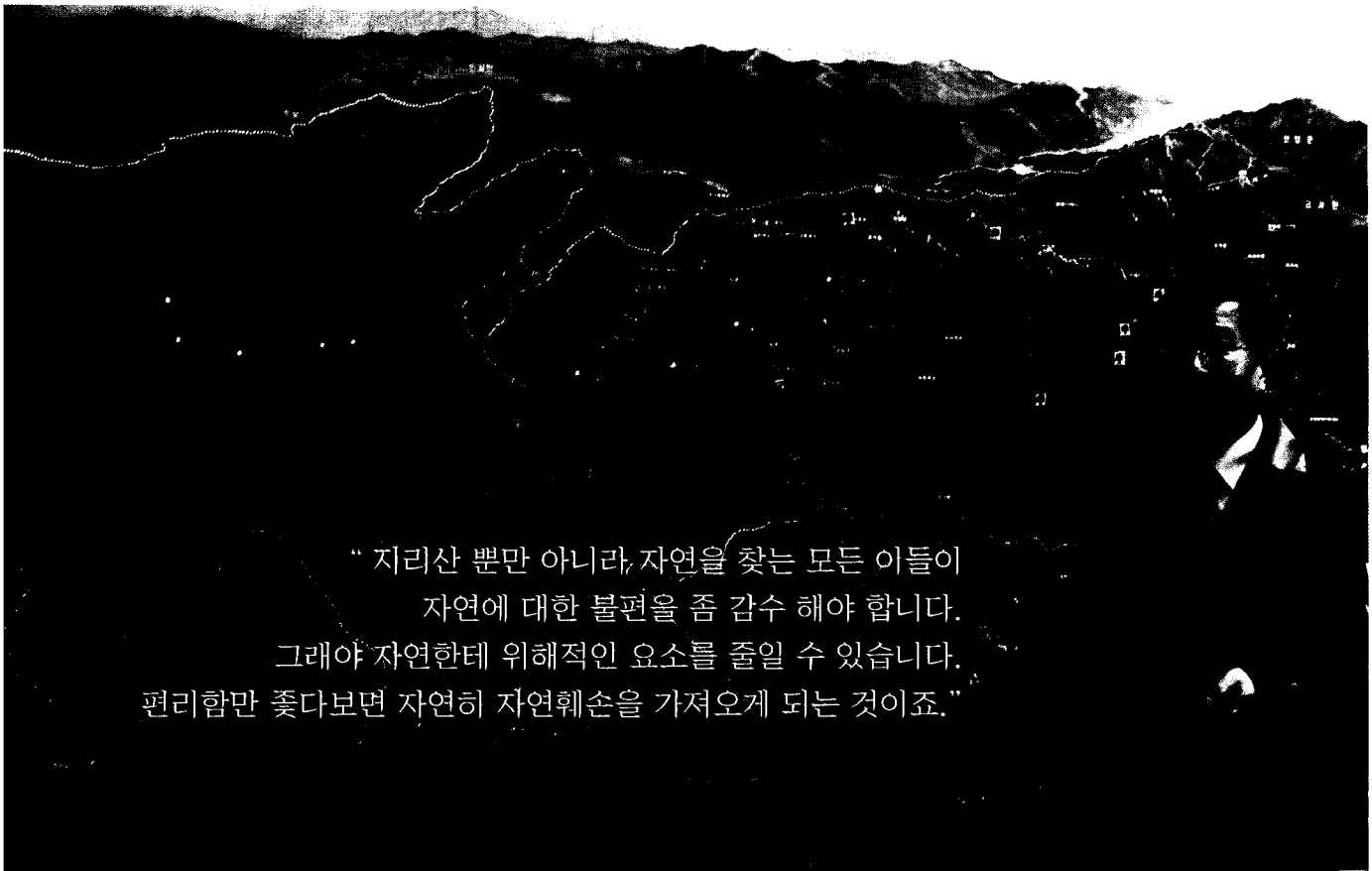


국립공원 관리자는 자연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



“ 지리산 뿐만 아니라, 자연을 찾는 모든 이들이
자연에 대한 불편을 좀 감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연한테 위협적인 요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편리함만 좇다보면 자연히 자연훼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바람은 지리산 자락으로 숨어들다 바위틈에 몸을 놓고 살을 부비며 친한 척 너스레다. 그렇지만 천년을 한결 같은 지리산 아니던가. 그 웅장한 자태를 짐짓 바꿔 바람을 맞을 리 없다. 지친 날개를 달래듯 한 숨 돌린 바람은 칭얼대듯 몇 번 더 휘둘다 짐짓 앵 돌아진 계집아이처럼 등성으로 꼭대기로 휘휘 날아 논다.

무턱 없이 부는 바람을 따라 가노라니 어느덧 지리산 국립공원 사무소에 닿았다.

나공주 소장님의 반가운 웃음과 소송호 분소장님 등의 인사와 함께 궁금증을 참지 못한 박종규 기자의 문답이 이어졌다.

박종규(이하 박) : 언제 이곳으로 부임하셨나요?

나공주(이하 나) : 한 달 됐습니다

박 : 식구들도 함께 오셨나요?

나 : 지리산 뿐 만 아니라 여러 곳의 국립공단에 발령 나서 근무지로 올 땐 국립공단 직원들 90프로 정도는 집을 떠나 혼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혼자 왔고요.

박 : 지리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나 : 지리산 800백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차로 돌아보면 서너 시간이 걸리거든요.

박 : 소장님께서 이 아름다운 지리산의 자연을 보존해야 하기도 하고 관람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다보면 자연 훼손이라는 일도 하게 되는데 소장님은 보전과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 늘 갈등이죠, 어느 한곳으로 치우침이 없는 균형감이 필요 합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환경이라든가 생태계 그리고 국가의 이념에 따른 관리자이지

자연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자연을 관리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고요. 자연과 사람들 간의, 다시 말해 보전과 개발이라는 과정에서 균형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박 : 케이블 카 설치에 대해서 많은 환경단체들의 우려가 있는데요

나 :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이나 국가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연보존이라는 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요. 그 변화하는 시대상에 따라 국가에서 큰 틀의 정책을 가지고 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정책에 발 맞춰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공원 소장들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박 : 지리산은 지역에 따라 3개도가 관리하는 곳이 다른데요, 이들의 유기적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나 : 3개도의 지역적인 특성이 매우 다르지요, 저는 경상남도의 행정적인 사무를 처리를 하고 있으면서 지리산관리의 통합적인 사무나 통일된 관리가 필요한일이 발생했을 경우 타 관소와 합의하여 일관된 업무 조정을 해내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전남 쪽은 지리산 국립공원의 20%를 차지하면서 국립공원의 다양성을 가진 곳이고, 기반이 잘 갖춰있어서 공단의 실험적 시행이라는 정책을 펼 수 있는 곳입니다. 전북 쪽은 지리산 국립공원의 23%를 차지하면서계곡과 주민들 그리고 6.25 한국전쟁 당시의 빨치산과 같은 이념적 특색을 가지고 있고, 이쪽 경남 쪽은 지리산 국립공원의 57%를 점하고 있는 고산지역으로 이뤄져 있어서 어떻게 고산지역을 관리하느냐에 따라 국립공원 관리의 성패를 가능할 수 있는 특색을 지닌 곳입니다. 이곳 경남지역은 지리산맥을 포함하고 있어서 지리산 탐방객들의 90%정도가 이곳을 중심으로 탐방을 하게 되는 됩니다. 이곳에서 탐방객들의 여러 가지 탐방 형태 및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어떻게 관리 하느냐가 지리산

관리의 관건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이자 면적 또한 제일 넓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공원관리가 우리나라 전체의 국립공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박 : 요즘 일자리 나누기 일환으로 대학생 인턴제가 활성화 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의 인턴제 현황은 어떻습니까?

나 :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외지에 있다보니 생활의 불편이 많아 북한산이나 계룡산보다는 선호도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올해만 해도 3명의 인턴을 모집했는데 1명만이 응시를 했고 그나마 그 한명도 여건이 맞질 않아 포기를 했습니다. 제 바램이라면 대학생 인턴들이 이곳을 찾아와 국립공원의 이해와 관심을 갖고 자연환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얻고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인데, 우리 욕심처럼 되지 않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박 : 마지막으로 지리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만 해 주세요

나 : 무척 많은데요, 일단 지리산뿐만 아니라 자연을 찾는 모든 이들이 자연에 대한 불편을 좀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연한테 위해적인 요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편리함만 좇다보면 자연히 자연 훼손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탐방객들에 의한 자연 훼손도 크다고 봅니다. 이곳만 봐도 고산지역의 대피소와 시설에 하루 약 400여명정도가 가장 적합한 탐방객의 숫자라는 통계도 나와 있는데, 많을 때는 2,000여명까지 몰리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잘들 지켜주시고 계십니다만 모든 탐방객들이 서로 더 양보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박 : 바쁘신 중에 이렇게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 감사합니다. ▲▲